



평양을 방문중인 권양숙 여사가 3일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방문, 박물관측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이 3대혁명전시관 중공공업관을 둘러보고 있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역사박물관·고려의학과학원 방문

■ 평양 방문 이틀째 권양숙 여사 분주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평양 방문 이틀째인 3일 오전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고려의학과학원을 각각 방문했다.

권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우리측 수행원과 조선중앙박물관 앞에 도착해 박철룡 부관장과 홍선옥 조선민주여성동맹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곧바로 박물관 유물을 관람했다.

권 여사는 박물관 차운용 여성강사의 안

내를 받으며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에서 출토된 100만년 전 동물 뼈가 전시된 고대관을 시작으로 19개 전시실을 모두 둘러봤다. 권 여사는 차 강사로부터 단군릉과 고구려 유물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설명을 들었다.

차 강사가 박물관의 전통악기 전시관에 전시된 편종과 편각을 이용해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연주하는 깜짝 공연을 선보이자 권 여사는 큰 박수로 답례했다.

권 여사는 이어 박철룡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부관장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유물의 도록 2권을 선물하면서 "(남북이) 서로 보고 싶은 게 많다. (남북 박물관 사이에) 정기적인 교류와 지속적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권 여사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노동위원회의 한방 주치의인 신현대 경희대 교수와 함께 고려의학과학원에 도착해 최득룡 원장의 안내를 받았다. 접견실에서 과학원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보고 북부초음파와 검사실, 수법치료실, 난치나이지료실, 뜸치료실 등을 둘러봤다.

“광화문 복원할 소나무, 백두산서 베어 뗏목으로...”

■ 특별수행단 간담회 남북관계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광화문 복원에 필요한 조선 소나무를 백두산에서 베어 뗏목을 만들어 압록강에서 서해까지 가지고 오자.”

2007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남북 특별수행단은 7개 분야별 북측과 간담회를 갖고 각 분야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정치, 경제, 농업, 문화, 예술, 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

우선 사회단체·언론분야 간담회에서 남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키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와 관련, 베이징 올림픽 성화를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남북 경로를 따라 남측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통과, 평양을 경유해 베이징으로 봉

송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언론 부문에서는 서울과 평양에 상주 특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평양에 프레스센터 건립하자는 제의도 나왔다.

정치 분야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함께 회담 정례화를 요청했고 북측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한 국회의 공동 지지 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남측 인사들은 그동안 진행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사업의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는 경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대표 간담회에서 경세호 섬유산업 연합회장은 “남측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은 “추가적인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한 당국간 협의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개성공단 2단계와 추가 특구 건설 참여를 희망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은 생사확인 과 상봉횟수를 확대하고 만남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상봉소 외에 개성에도 이산가족상봉소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남측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염병에 대한 공동방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보건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화·예술·학계 분야에서는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이만희 감독의 ‘만추’ 등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필름 교환을 제안했고 북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특별수행원 49명은 2일 밤 평양 첫날 공식행사를 모두 마친 뒤 친목모임인 ‘보통회’를 결성했다

북한 비핵화 2단계 합의문 채택 의미와 전망

‘불능화’-‘상응조치’ 석달내 끝내야

잠정 합의의 상태였던 북한 비핵화 2단계 이행 합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외교가의 관심은 ‘합의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합의 사항 이행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물론, 신고·불능화 작업과 그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치·안보적 상응조치가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될 것 인지에 좌우될 것이라는데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일 ‘OK 사인’...변수 사라질 듯= 손 매코락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을 검토, 승인한다는 뜻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6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문안에 합의했을 당시 북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 문제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파=마지막 변수가 해소된 것은 결국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문제를 북·미·일 3국이 반대하

지 않는 표현으로 합의문에 담아낸 결과였다. 이는 외교가의 분석이다.

테러지원국 문제와 관련, 이번 합의문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북한에 대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2.13합의에서) 약속한 것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의 합의에 기초한 북한의 조치와 병행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북한이 신고 및 불능화 이행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문구는 합의문에 명시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가 지난달 초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연내 불능화·신고-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삽입함으로써 최대 난제를 돌파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위해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 외에도 의회의 동의와 국내 여론 무마 등이 필수인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라도 시한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승인’의 문을 열었다.

◇이행 전망=우선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기까지는 북한측 핵프로그램 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은 플루토늄의 생산 및 사용내역, 재고량 등을 숨김없이 신고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NP) 관련 자체 구입 후의 용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명해야 한다.

또 불능화 문제도 각 시설별 기술적 방법에 대해 아직 북한과 타 참가국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수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

불능화 이행 목표시한까지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능화 방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경우 물리적으로 연내에 불능화 이행을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북한 불능화·신고 이행의 끝을 비슷 한 시간대에 맞추는 일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 “남북정상회담 지지...핵폐기 진전 기대”

미국 백악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니얼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평양에서 만난 것과 관련,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남북간 대화를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페리노는 특히 “이번 회담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급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주)한백 세븐 사시 출시!!



한백 세븐 사시...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가정에서 주상식까지 이제 '사시'이행

한백 세븐 사시입니다.

신사발 등... 한백 세븐 사시...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대리점모집

한백 세븐 사시...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

HAN BACK SEVEN SASH

호남의 사시를 선도하는 향토기업